

# 2022년 여름에 드리는 오교수선교사 선교 소식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여 이번 3월부터 8월말까지 안식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원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교회와 후원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름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 1. 안식년동안 쉼과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보내며 계획했던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를 방문하고 몽골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코로나여파로 모든 계획이 수정이 되어 4월 제주도에서 쉼과 사역을 병행하였습니다. 제주도에 쉬면서 제주대학에 유학 온 몽골학생들과 제주도에 거하는 이주민들을 만나서 구원 상담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매일 하던 사역들도 안식년 기간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줄여서 유학생들과 이주민, 탈북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 2. C국과 몽골 외국인 유학생 사역, 국내 이주민 사역, 탈북민 사역

일주일에 2-3일 정도 유학생들과 이주민, 탈북민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챗을 통하여 C국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점차 유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졸업을 한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대학의 몽골 유학생들과 부산 외대의 C국 유학생들, 서울과 광주, 전주, 진주, 천안의 유학생들을 만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주민들도 만나며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였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탈북민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의 상황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 3. 가족 소식

큰딸 은혜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채팅을 통하여 라온이와 라엘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낙입니다.

은빛이도 구미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새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정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 후원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주일과 수요일에 후원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후원교회에서는 시간을 정하여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교수선교사 연락처: 핸드폰: 010-5946-5383, 이메일: [Sohsung@hanmail.net](mailto:Sohsung@hanmail.net)

국내에서 유학생사역과 이주민 사역, 탈북민사역을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후원이 줄어들어 현재 1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 오교수선교사 드림

### 오교수선교사의 기도 제목

1. 안식년 동안 충분한 쉼과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몸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2. 몽골과 C국사역과 국내 외국인유학생사역, 이주민 사역, 탈북민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 안식년 동안 다음 사역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 70까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큰딸 은혜와 작은딸 은빛의 가정이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 사역 사진 모음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 탈북민사역)



울산교회 중국인예배모습



탈북민 만남



몽골 유학생 만남



부산외대 유학생들 만남



제주대 유학생과 간사님



제주몽골인교회 성도만남



제주몽골인교회 예배모습



제주대학 몽골유학생 만남



제주대학 몽골유학생 만남